

## 김경욱 차관 “철도연결은 국가 간 상생번영 핵심 대륙연결의 시작”

17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참석...효과적 실천방안 강구 당부

□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12월 17일(화)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심포지엄\*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\* (주최)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민주연구원,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, (후원) 국토교통부, 통일부

○ 이번 행사에서는 김 차관 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,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,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, 이수훈 전 일본 대사가 토크콘서트를 가졌다.

○ 이어서,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외교, 물류, 경제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.

\* (좌장)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, (토론) 임강택 통일연구원장, 투글두르 바지크 광역두만강개발 사무국장, 웨이민 렌 유엔에스캡 교통국장, 이반 톤키호 라손콘트 랜스 사장, 이종원 와세다대학 교수, 마리 드몬드 전략국제연구센터 부이사

□ 김 차관은 “상호 연결성을 통한 경계 없는 확장은 국가 간 상생 번영의 핵심기반이며, 철도는 가장 중요한 연결수단”이라면서,

○ “섬처럼 간혀있던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과업 또한 철도에서 시작될 것이며, 공동체 구상의 실천방안을 찾는 이번 심포지엄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시대를 앞당기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2019. 12. 17

국토교통부 대변인